

이낙연 “이중생활 하지 않겠다” 연내 탈당 시사

광주·전남 국회기자단 간담회

“신당 창당은 국민들의 요구”
“내년 1~2월 모든 일 이뤄질 것”
“당내 민주주의의 없다” 비판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시점에 대해 “당연히 정리한다. 그 정도의 도리는 있다. 이중 생활하지 않겠다”며 빠르면 연내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인근 식당에서 가진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을 것이냐의 마지막 시기가 지금 왔다.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그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 또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요구에 부응해야 할 압박이 저한테 집중된 게 사실이다. 그것 만큼 큰 명분이 어디 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1%대, 출생률은 0.6%대까지 떨어졌다. 위기 상황을 되돌려 놓을 역량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책임의식을 가진 정치세력이 나와서 이를 타개해야 된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호응하리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서 “내년 총선거로부터 역산해서 후보 등록이 언제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안다”며 “모든 일들이 내년 1~2월 사이에 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최소한 수일 전에는 신당의 후보들이 확정돼야 한다.

그는 진보와 보수진영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서 “원래 대중정당은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다. 오히려 확실적인 것이 문제”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보수인사로 꼽히

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기품이 있는데다 경제 전문가”라며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악하고 있다. 혁신위가 가동됐지만 아무 것도 못했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졌다. 겨우 4명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스럽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만나겠다. 그러나 사진 찍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바라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혁신은 저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

다라는게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 사퇴도 혁신 대상임을 애둘러 표현했다.

그는 “지금 양당으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제 3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 표를 얻어 선거 후에 힘을 합칠 수도 있다”면서 “총선 이후에 가시화될 위기가 되도록이면 연착륙해서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하는 사람은 김대중 정치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거치면서 성장한 정치인인 자신”이라며 “호남인이 그 리워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려놓고, 그 민주당을 그리워하는 분들과 길동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병훈 민주 시당위원장 “신당 반대… 당 지킬 것”

이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3일 소위 ‘이낙연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 동남을을 지역구로 둔 이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총선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계파정치에 대해서도 “친



명, 비명 갈라치기도 총선승리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권 심

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국민의당 바람을 언급하면서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 된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의 ‘웃’을 입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13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클린선거’ 실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박혜자 “광주를 기회 도시로” 서구갑 출마 선언

박혜자(사진) 전 국회의원이 13일 “검찰 독재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일하는 정치로 광주를 기회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서울 집중, 지역 차별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재선에 나서기 전



에 태만한 정치로 패배한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부터 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권과 속 시원히 싸우기는 커녕 당내 갈등과 반목 속에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넋덜머리를 내고 있다. 지금은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박군택 “광주 미래 광산 도약” 광산갑 출마 선언

박군택(57·사진)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가 13일 “윤석열, 한동훈을 꺾고 검찰독재를 끝내는 정치인, 광주의 미래인 광산을 도약시킬 정치인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광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 직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 검사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제가 검찰정권의 폭주를 막는 정치인이 되어 한다는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고 집요하게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강한 존재감과 전투력을 갖춘 정치인의 출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광산갑이 광주의 핵심지역임에도 군사시설로 발전이 저해되고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도심이 단절되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것은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힘 있고 유능한 정치인이 부재한 탓”이라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 민주 예비후보자들 “정책선거 실천… 네거티브 NO”

‘클린 선거 실천 선언문’ 발표

내년 총선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13일 ‘클린 선거 실천 선언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실천하고 모략과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기대하면서 바른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할 ‘클린 선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동남갑 오경훈·정진옥, 동남을 김해경, 서구갑 조인철, 북구갑 문상필·정준호, 북구를 전진숙·조현환, 광산갑 박군택, 광산을 정재혁·최치현 예비

후보가 동참했다.

이들은 “입후보자가 어느 때보다 많아 과열이 우려된다”며 “과거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과 상처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클린선거를 통해 정책 대결이 아닌 근거없는 비방과 모략으로 서로를 흠집내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기현, 국힘 대표직 사퇴 “당 안정·총선 승리 이바지”

김기현(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커져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



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

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저도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